

장애인식개선
책자

우리함께 다시함께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장애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도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때** 입니다.



장애의 범주

장애범주는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법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WHO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분류를 반영하여 장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장애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장애출현율 **24.5%**에 비해 우리나라는 **5.4%**로 낮은 장애출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범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세계 속 장애 범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폐질환, **알레르기, 당뇨, 학습,**
지적, 정서, 알콜중독,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장애감수성이란?

장애감수성은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느끼고 표출하는 반응으로 장애의 다름을 수용하는 동시에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길을 가다가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면 무조건 밀어줘야 될까요?



A. "아니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엔 휠체어를 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계단이나 턱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 **먼저 도움일이 있는 지 묻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에 장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아주세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모두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도움은 NO!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필요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면 물어봐
주세요.
"도와드릴까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생활 속 잘못된 표현

"눈 먼 돈"

눈 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는 돈을 의미하며, 시각 장애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표현은 "관리가 안되는 돈"입니다.



"결정장애"

결정장애는 어려움을 장애로 빚댄 올바르지 못한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표현은 "우유부단"입니다.



"절름발이"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쳐서 걸거나 뒹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가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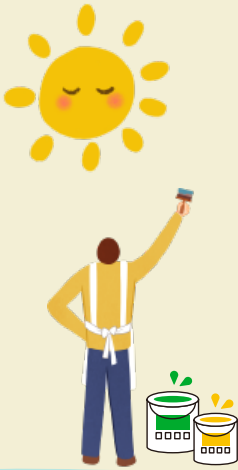
올바른 언어표현은 "지체장애인"입니다.



"일반인, 정상인"

장애가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일반인' 또는 '정상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장애인도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표현은 "**비장애인**"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므로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닌 '**장애가 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으로, **개인이 극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에티켓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보행을 안내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수 있게
반보 앞에서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 주세요.

보행을 도울 때는 갑작스레 옷자락을 잡아
끌거나 어깨를 잡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안내견을 쓰담거나 음식물을
주지 말아 주세요.

또한 휘파람, 박수, 말 걸기 등
안내견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휠체어를 타거나 키가 작은 지체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 주세요.



만약 도움을 주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꼭 물어봐 주세요.



대화 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주세요.

혹시 넘어졌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주세요.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단어로 천천히 짧게 말하며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웃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생활연령에 어울리는
존칭어를 사용하여 존중해 주세요.

만약 돌발행동을 보인다면 성급
하게 막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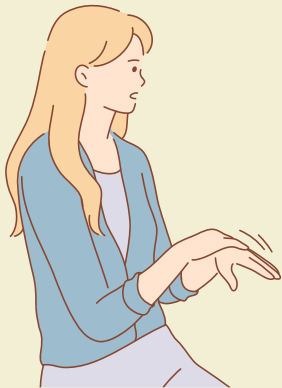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돌발행동을
보일 수 도 있지만 절대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니 침착하게 대처해주세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세요.

표정과 여러가지 제스처로 다양하게 표현해주세요.



한국수어를 모를 땐 필담이나 제스처로 대화를 시도해주시고, 그것이 힘들면 수어통역사를 불러주세요.

말을 듣지 못한다해서 반말을 하는 것은 안돼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유니버설 디자인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장애인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장애 유무나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및 환경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쇼핑카트에 짐을 가득 실은 사람, 유아차에 어린아이를 태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계단으로 이동하기 어렵겠죠?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용자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디자인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

1. 공평한 사용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유연한 사용
: 사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간단한 사용
: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쉬운 정보 습득
: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사용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실수 포용력
: 의도치 않은 실수가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6. 적은 신체적 노력
: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7. 충분한 공간 확보
: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센터 운영

교육센터 운영

지역 내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 존중을 통한 보편적인 인권 친화적 문화 실현을 위해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보유현황

인권전문강사	장애인인권 교육강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외부강사 및 파트너강사
24명	24명	12명	8명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문강사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센터 교육현황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역 내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저변확대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주민 등

사람중심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충청북도 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 방법



교육문의

복지관 전화
☎ 070-4221-9865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cbr.or.kr>

복지관 이메일
cbror.kr@hanmail.net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 인권이 침해되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호자에게 도움!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

신고해요!

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이용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통해 인권침해를 알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전화 1331

경찰서 1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